

# 국립나주박물관 ‘상설전시실’ 새 단장 오픈

서남부 국보·보물 4천여 점 전시  
영산강 유역 고분문화실 등 구성  
지진대비 안전한 전시환경 조성

새롭게 단장을 마친 국립나주박물관 상설전시실이 지난 15일 문을 열었다.

상설전시실 재개관은 2013년 건립 이후 10년 동안 축적된 조사·연구 성과를 새로운 전시기법으로 담아내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안전한 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 결과물이다.

●영산강유역 고분문화실·역사문화실 유물 4000점 전시

상설전시실은 크게 고분문화실과 역사문화실로 나뉘어 구성됐다.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전남 서남부지역에서 출토된 국보와 보물 등 4000점의 문화유산을 선보인다.

고분문화실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독특한 고대 고분문화를 소개한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무덤 양식인 독널을 집중적으로 전시함과 동시에 미디어 아트 영상이 어우러진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영상은 길이 30m 대형 벽면을 이용해 ‘영원한 안식’이라는 주제로 독널에 묻힌 사람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국보인 나주 신촌리 금동관은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 명품으로 가치를 재조명한다. 금동관을 품었던 신촌리 9호분 독널 을관(乙棺)과 다른 꺼묻거리를 함께 전시함으로써 당시 매장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역사문화실은 전남 서남부지역 역사를 통사적인 관점에서 전시해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선사시대의 다양한 도구를 비롯해 역사시대의 살림살이, 해양교류, 신앙 등을 주제로 전시장을 꾸몄다.

보물인 나주 서성문 안 석등은 역사문화실 안에 독립된 공간을 꾸며 전시함으로써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려 석등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면진 시설 설치로 지진 대비 안전한 전시 환경 조성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지진은 강도가 강할 경우 문화유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박물관 전시품들은 지진의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면 파손의 위험이 크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기관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전시실 안전시설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국립나주박물관은 상설전시실 전체에 ‘면진 시설’을 설치했다.

이 시설은 고정형 벽부 진열장은 내부



받침대 아래에 설치하고, 이동형 진열장은 면진대를 먼저 놓고 그 위에 설치했다.

보물인 나주 서성문 안 석등과 독널 등 무겁고 부피가 큰 노출 전시품의 받침대에도 면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모든 전시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관람객 이용 편의시설 확충...장애인 이동 편의 개선

이번 상설전시실 재개관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박물관 실현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중앙홀은 관람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서 새롭게 단장하고 전시실 안내 데스크를 접근이 쉬운 공간으로 설계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시실 내부 바닥면을 모두 평평하게 개선 시공했고, 전시관 출입문도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안쪽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했다.

전시실 안에는 아카이브 공간을 신설해 편안한 휴식과 함께 박물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영산강 유역 대표 고분 위치를 비롯한 고분 관련 정보와 일제강점기 때 조사된 반남고분군의 유리건판 자료(사진)들을 소개해 고분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처음 진행한 ‘독널 3D 스캔’ 사업의 결과물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독널 조각이나 주요 전시품의 복제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박물관 공간을 구성했다.

국립나주박물관 관계자는 “새로운 상설전시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누리집 등에 소개하고 정기적인 전시 설명도 이어갈 예정”이며 “전시 연계 교육을 새롭게 준비해 내년에는 새로운 전시 공간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옥외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빛가람 호수공원 등 4곳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한전KPS의 지원을 통해 심정지 등 위급 상황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 처치 기기인 자동심장충격기를 공원 4곳에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빛가람 호수공원 2곳, 대호수변공원,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등 실외 공간에 설치됐다. 충격기 설치에 한전KPS 기부금을 활용해 이뤄졌다. 한전KPS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와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실무자 간담회에서 충격기 설치를 제안받고 흔쾌히 설치비용 2000만원을 지원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강한 전기 충격을 줘 심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응급 처치 기기다.

실내용이 아닌 옥외형으로 설치돼 응급상황 시 사용 접근성, 실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227대로 향온·향습 유지가 필요한 기기 특성상 모두 실내에 설치돼있었다. 실내용 충격기의 경우 섭씨 0-40도(C)에 보관해야 해 실외에 둘 수 없다.

반면 이번에 설치된 옥외형 충격기는 기온 변화 감지센서, 향온 기능이 탑재된 태양열 보관함을 활용해 실외에서도 보관·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 수확 농작물 나눔활동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나주지역 어르신들이 노인사회활동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17일 (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회장 서정운)에 따르면 해당 어르신들은 노인사회활동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동네 텃밭에서 각종 농작물 수확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나눔을 실천했다.

노인회 어르신 250명은 지난 2015년부터 각 읍·면·동에 방치된 유휴농지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 꽃밭과 텃밭으로 가꾸어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농산물을 수확해 매년 지역 아동들과 나누고 있다. 텃밭에선 계절에 맞춰 배추, 무, 감자, 고구마, 들깨, 열무, 양파, 옥수수 등을 재배·수확한다.

어르신들은 지난 5월 금계·남의동 텃밭에서 기른 열무를 시작으로 6월 봉황면 텃밭에서 양파(20kg) 200망, 노안·반남·공산면 텃밭에서 감자(20kg) 70상자, 10kg 40상자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에 전달했다.

7월 금천·왕곡면 텃밭에서 옥수수 48망을 수확했으며 금천·동강면, 성북동, 청동 텃밭에서 봄에 심었던 고구마를 수확해 지역아동센터 아동 간식으로 후원했다. 지난 11월 20·21일에는 무와 배추를 수확해 김장철 건강간 먹거리를 지원했다.

서정운 나주시노인회장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어르신들이 동네텃밭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수확해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다. (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제공

## 친환경 공공디자인 ‘최우수상’ 도 주관... 경관행정은 ‘우수상’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남도가 주관한 ‘제8회 친환경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경관행정평가서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친환경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자연과 문화,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제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외부 전문가 현지심사 등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 죽림동 소재 옛 과물협동조합 건물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리모델링해 건축한 ‘나주 문화예술소통창작소’ 사례를 제출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작년 금성산 생태숲 사례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설치돼 역사성과 희소성을 갖춘 건물 외관을 전부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 재현했으며 실내 공간 또한 기존 일부 재료를 활용해 정비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창작소는 주민들의 문화 콘텐츠 향유를 위한 전시·체험 공간이자 외부 관광객, 예술작가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민선 8기 ‘국제 레지던스’ 사업에 참여한 국내외 작가 6인의 예술창작 및 작품 전시 공간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전남도 경관행정평가에선 ‘나주읍성 흙돌담 조성사업’을 제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 나주시, 전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1위 ‘최우수 기관’ 선정

나주시가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구축, 시책 추진에 노력해온 성과를 으뜸으로 인정받았다.

나주시는 전남도에서 주관한 2023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2개 시·군 중 1위에 해당하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최우수기관 선정을 통해 시는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이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의 청렴 수준 향상과 반부패 가치 확산을 위해 각 시·군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 노력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반부패 시책 추진, 반부패 제도 지역 사회 확산 등 3개 부문에서 성과와 노력, 실효성 등 13개 지표를 합산해 선정

한다.

나주시는 13개 지표 정량평가에서 1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전부 만점을 기록하는 탁월한 실적을 달성했다.

시는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의식, 역량을 확인하는 청렴감수성(CBTI)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올해 상·하반기 전 부서 및 읍·면·동을 순회하며 청렴 시책을 공유하는 청렴 좌담회(2회)를 비롯해 4~5월 간부·팀장급 이상 청렴 교육(2회), 9월 전직원, 12월 신규 공직자 대상 반부패 청렴 교육을 통해 내부 청렴 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여기에 민원인 대상 청렴도 설문조사와 이를 통해 행정 개선사항을 수렴하는

해피콜 운영(52회·1500여명), 외부 독립된 시각으로 부패 요인을 탐지,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등을 운영하며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였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날 감사실 직원들과 만나 반부패 시책 추진과 확산에 힘써온 노고를 격려했다.

윤 시장은 “도내 최우수기관 선정은 감사실과 더불어 전 직원이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청렴을 기본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고자 모두가 최선을 다한 성과”라며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 추진을 통해 공직자,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